

19 아시아지역노회신설소위원회 보고

제107회기 아시아지역노회신설소위원회 사업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위원장 이성화
서 기 김장교

1. 조 직

- | | | |
|--------------|------------|--------------|
| • 위 원 장: 이성화 | • 서 기: 김장교 | • 부 서 기: 오태식 |
| • 회 계: 조형국 | • 총 무: 전요셉 | |

2. 회 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2023. 3. 21.(수) 11:00

☞ 장 소: 온라인회의

☞ 결의사항

- ① 소위원회 임원조직
위원장: 이성화 목사, 서기: 김장교 목사, 총무: 전요셉 목사
회계: 조형국 장로, 부서기: 오태식 목사
- ② 소위원회 임원 당연직은 총회장 권순웅 목사나 총회 회록서기 한기영 목사인데 총회장 권순웅 목사 대신으로 총회 회계 지동빈 장로로 변경됨을 확인하다.
- ③ 아시아 노회 설립 모임을 위하여 중앙아시아 방문을 위한 경비 300만 원을 추경하기로 하다. 여행경비 중 항공비는 총회장과 서기 및 위원장만 지급됨을 공지하다.
- ④ 중앙아시아 방문 일정은 아래와 같이 정하다.
가. 일시: 5월 28일(월)부터 6월 2일(금)
나. 참석: 총회장, 위원장, 총회 서기 및 소위원회 임원
- ⑤ 소위원회 다음 회의는 4월 3일(월) 오후 2시 총회회관에서 회집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2023. 4. 3.(월) 14: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28일 도착하여 알마티에서 1박, 알마티에서 키르기즈스탄 비스켓트로 이동은 18인승 버스를 대여하여 이동하기로 하다.
- ② 비스켓트에서 30일(화)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2시) 전 아시아지역으로 온라인회의로 하기로 하되 GMS본부 화상 시스템에서 주관하기로 하다.
- ③ 자문위원으로는 GMS동남아시아지역위원장 배만석 목사, 실크로드 지역 위원장 한창호 목사라 하며, 전문위원으로는 GMS선교사무총장 전철영 선교사를 위촉하기로 하다.



- ④ 아시아노회신설소위원회와 GMS 지역대표와 화상으로 연석회의를 하기로 하고 아시아지역 노회 신설을 위한 홍보를 하기로 하다.
- ⑤ 아시아노회 설립 모임을 위해 중앙아시아 방문을 위한 경비는 현지 물가상승(2.5배)으로 인하여 1,000만 원을 추경하기로 하며 체류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2023. 5. 30.(화) 15:00

☞ 장 소: 키르기스스탄 비스케트

☞ 결의사항

- ① 지역적 연합의 문제, 지역 간의 모임이 회의적이지만 노회를 설립함으로써 지역의 모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다.
- ② 노회가 형성되면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총회에 참석할 수 있음을 논의하다.
- ③ 노회가 설립됨으로 GMS와 노회 모임으로 아시아지역의 노회 복귀하는 데 의의가 있음을 확인하다.
- ④ 아시아지역 노회 설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만석 목사(사랑스러운교회), 전철영 선교사(GMS 사무총장)를 고문으로 위촉하기로 하다.

〈현지 선교사 안전 및 질의사항〉

- ① 노회로 가입하여 노회원이 되었을 때 GMS 선교사의 신분과 담임 목사로서 신분을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질의하다.

〈답변〉 신설노회를 위하여 설립 준비위원(가칭)을 조직하여 행정에 필요한 서류 절차를 준비케 하여 총회와 논의하여 목사로서의 신분과 선교사로서의 신분에 관한 사안을 답변키로 하다.

- ② 선교사는 담임 목사로서 소외됨이 있는데 목사로서 총회의 정체성의 문제는 교단의 연관성을 어떻게 해야 하며 본교단의 목사이지만 GMS의 소속 선교사가 아닌 비GMS의 선교사는 교단 목사로서 노회 안에서 GMS의 신분과 관계성에 대한 설명을 구하다.

- ③ 노회 설립을 위해서는 21개 당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한인교회와 현지인 교회는 당회의 구성이 어렵다.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한인연합교회에는 교단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없고 교회 안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섬기고 있다. 이런 교회의 상황 속에서 교단 가입의 건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개연성을 도발할 수 있다. 그 문제의 답변을 구하다.

〈답변〉 선교지의 한인교회는 구성의 다양한 교단으로 형성되어 있고 특수지역과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노회 설립 허락의 건에 관하여 총회와 논의하도록 하겠다. 타지역에서도 이 문제를 예외 조항으로 하여 노회 설립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하며 총회와 논의하여 하겠다고 하다.

- ④ 아시아지역 노회의 범위는 일본을 포함하여 아시아 전 지역을 포함하고자 하며 노회 조직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조직의 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임원들과 GMS선교사무총장과 논의하기도 하고 7월 14일 2차 회의를 하기로 하다.

- ⑤ 노회 가입에 관한 서류 양식 등은 총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다. 특히 총회와 유 지재단과 재산권과 기타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하다.

- ⑥ 아시아지역노회신설위원회 조직은 제108회 총회에서 연장을 청원하도록 하다.

청 원 서

수신: 총회장

참조: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아시아지역노회신설소위원회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아시아지역노회신설소위원회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아시아지역노회신설은 아시아에 속한 총회 소속교회와 GMS에 속한 교회들이 총회에 가입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총회의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1년 연장 청원과 함께 합동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 공동의회 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지 한인교회는 연합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타교단에서 온 교인들은 공동의회 결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공동의회 결의가 아닌 당회결의로 내용을 변경하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2023년 9월

아 시 아 지 역 노 회 신 설 소 위 원 회

위원장 이 성 화

서 기 김 장 교